

정부양곡 고급화 위해 친환경 벼 매입 추진

농식품부, 23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4만톤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만톤을 매입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19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국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0월~12월 산지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되며, 벼 수매 직후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이외 품종을 수매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민간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품종을 확인한다. 또한,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하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시·도별 매입 물량(30만톤)을 차등 배정하고, 농가별 인센티브를 별도 부여한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물량을 5만톤(전년 3.5만톤)으로 확대하여 농식품부가 각 시·도를 통해 직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에도 품종검정제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 벼 수매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5일 지역본부 주관으로 2019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위한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업적평가 1위 우리가 해낸다!

전북농협,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위한 보고회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5일 지역본부 주관으로 2019 농축협 종합업적평가를 위한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업적평가는 판매농협 구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협의 지속 성장 기반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로 1위 달성을 위해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총 20개 평가그룹으로 나눠 9월·9월 분기평가 및 연도말 평가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말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10개 농협이 9월말

분기평가에 대비하고 연도말 1위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하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반드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지원반 이종금 단장은 보고회에서 "종합업적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사업 전반적으로 조합원·고객 지원에 대한 농협의 지원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농협의 역사적 5명 앞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매월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눈에

전북중기청, '길라잡이' 발간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다운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길라잡이(9월호, 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본 길라잡이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지원시책을 안내하는 책자로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신청서 양식을 손쉽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와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9월호)는 세 번째로 전북중기청·고용노동부·전주중기청·중진공 등 도내 12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창업·기술·금융·수출 등 지원분야별 다양한 정책들(67개)을 수록하고 있다. 길라잡이는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작은 힘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강조하는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그동안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기업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소통수단을 강구해왔다"면서 "길라잡이 또한 그 중 하나라, 도내 중소기업 모두가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태풍 대책회의 개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대비 2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1차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이번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 상태로 한반도에 상륙하여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 태풍에 대비할 시간이 불과 하루, 이를 막을 남지 않음을 감안하여 품목별 사전대응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아울러,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농협계통사무소가 지속적인 안내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농업인이 야외 활동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 민간인이 출입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링링' 대비 긴급 대책 점검 회의...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5일 오전 10시 본청 6층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각 실·국장, 소속기관장들과 함께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긴급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진행에 따른 대응 방안과 긴급 복구 체계 등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기술지원단(6개반 18명)은 지난 4일부터 전국 9개도에 농작물 관리요령과 기술 지원을 진행 중이며, 각 지역의 연구기관들도 농업인들의 사전 대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농촌진흥청이 5일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긴급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로 정비, 작물 미리 거두기, 과일나무 가지 고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조율하며 대응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사업추진 우수 9개 영업점 시상식 가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4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사업추진 우수 사무소로 관내 9개 영업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상은 사업추진 우수 사무소에 대한 우량여신, 총수신,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달성, EIT 명인 기념패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우량여신(익산시지부, 효자동지점), 총수신(익산시지부, 남원시지부, 임실군지부, 순창군지부), 퇴직연금(전주완주시군지부, 무주군지부), 방카슈랑스(익산시지부, 김제시지부), EIT 명인(진안군지부, 과장대리 이정훈) 순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특히, 익산시지부는 우량여신 2천억원, 총수신 7천억원, 방카슈랑스 수수료 1억원을 달성하며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농협은행을 사랑하고 애용해주시는 도민과 고객 덕분에 관내 9개 영업점이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며 "농업인과 도민에게 사랑받는 NH농협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